



양양소식

군정방침

- I. 신뢰받는 자치행정
- I. 균형있는 지역발전
- I. 매력있는 관광개발
- I. 실속있는 복지실현
- I. 특색있는 문화창달

발행인:양양군수 / 편집인:기획감사실장 / 발행처: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번지 Tel (033)670-2223 Fax(033)672-4242



"세계로" 강원도 하늘길 열렸다

- 환동해 권 중심 허브공항, 통일대비 남북교류 거점공항 -

- 지역 주민 등 1천 2백명 참가, 성공적 개항 -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2일 역사적인 개항식을 갖고 강원도의 하늘길을 활짝 열어젖히며 환동해권 중심지와 남북 항공교류의 거점공항으로서 새로운 항공시대를 예고했다.

오전 11시 양양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개최된 이날 개항식은 이한동 국무총리,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 송훈석 국회의원, 오인택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우리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신공항시대'를 경축했다. 이날 양양국제공항 개항식에 참석한 이한동 국무총리는 "양양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현재 속초에서 장전간의 해로나 고성과 금강산을 잇는 육로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은 앞으로 남북항공 교류의 거점공항이 될 것이며 강원도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동 총리는 개항식에 이어 열린 청사내 오찬장에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고 설악권과 금강권의 연계 개발이 추진되면 이 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양양국제공항의 앞날은 한층 밝다"고 강조, 양양국제공항이 남북교류 공항으로서 역할을 거듭 언급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식에 앞서 여객기 계류장 등 공항주변에서 열린 식전행사는 양양지역풍물패 공연과 군악대 연주로 역사적인 강원도의 하늘길을 여는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또한 동해충용부대 군악대는 본행사 30분전부터 관악연주를 선사했고 양양 주민들로 구성된 청성풍물패는 20분간의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흥을 돋우며 양양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을 축하했다. 식전행사에 이어 펼쳐진 개항식 본행사는 양양국제공항 개항후 강원도의 관광발전을 전망한 영상물이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면서 양양국제공항의 신항공시대를 통해 희망찬 강원도의 미래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특히 이한동 총리와 임인택 건교부장관, 김진선지사, 송훈석 국회의원, 오인택 양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오색 축포와 함께 모형 여객기가 도착하는 이벤트가 연출되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절정을 이뤘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축하공연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오후 5시30분 김진선 지사와 송훈석 국회의원, 오인택 군수, 황병률 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산비치호텔에서 열려 양양국제공항 개항 의미를 축하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첫 날 모습

양양국제공항 개항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8시 35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대한항공KE1702편 보잉737-900기는 탑승객 46명을 태우고 양양국제공항을 활주로에 가볍게 착륙해 역사적인 운항을 시작했으며 오전 10시 1백31명의 승객을 싣고 김포로 출발했다. 또한 오전 11시5분 상해 푸둥공항을 출발한 중국동방항공 MD90기는 탑승객 30명을 태우고 오후1시 양양국제공항에 안착, 환동해권 중심공항의 시작을 알리며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이날 입국한 중국인 탑승객들은 입국소속을 마치고 설악권 관광에 나섰으며, 중국 동방항공 MD90기는 국내에서 중국관광에 나서는 관광객80명 등 탑승객 1백36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1시45분 이륙, 제주를 거쳐 상해로 향했다. 이날 5회 운항된 김포행 국내선 여객기에는 태국 방콕행 30명을 비롯해 47명이 양양국제공항~김포~인천국제공항을 이용,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동남아 노선 등 국제노선 활성화에 따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양양국제공항 운항 첫날 첫 도착의 행운을 안은 심명호씨(58세,서울)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권과 기념품을 전달받았으며, 국제선 첫 입국자인 황웨이신씨(44세,중국 강서성)도 강원도와 양양군 관계자들로부터 꽃다발과 선물을 받았다.

국제선 첫 항로의 기장을 맡은 동방항공 MD90기 주창웨이 기장(42세)은 “양양국제공항에 착륙할 당시 바다와 산이 무척 아름다웠다”며 “활주로 노면도 상태가 아주 좋고 여객기 이착륙 등 안전에도 아무 이상 없이 쾌적했다”고 말했다.

의 정 소 식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조례안 의결

우리군의회(의장 황봉율)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91회 임시회를 열고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모두 8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양양군세개정 △양양군세감면개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개정 △양양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양양군청소년지도위원위 해촉에관한개정 등 5개 조례안에 관해 심의 의결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개정 △양양군사무위임개정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개정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선정 의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우리군의회는 오는 6월 13일 치뤄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2차례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2 연어치어 생산방류

- 양양내수면 연구소...5백40만마리, '기르는 어업 확대'-

국립수산과학원 양양내수면연구소(소장 손송정)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 송훈석 국회의원, 오인택 군수, 황종국 고성군수 등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연어치어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양양내수면연구소는 이날 방류행사에서 지난해 가을 생포한 어미연어 1만2천3백만 마리로부터 채란, 인공 부화시킨 연어치어 7백55만 마리 중 5백40만 마리를 남대천에 방류했다. 이번 연어치어 방류는 지난 3월 전남 섬진강에 60만 마리가 방류된데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 방류로 내수면연구소는 향후 고성 북천, 명파천, 강릉 연곡천 등에 각각 4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특히 비무장지대내에 위치한 남강에도 5만마리가 방류될 예정이다. 이날 연어치어 방류행사에 참석한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어 자원화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표적 신어업 정책으로 기르는 어업육성 등 경쟁력확보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예산과 시설확충, 방류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2013년 까지 양양에 신항만이 건설된다”고 피력해 현재 양양신항만 건설과 관련, 개발과 보존논쟁이 빚어지는 가운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예정대로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해수부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포월농공단지 활성화

- 벤처타운내 6개 첨단업체 입주예정 -

우리지역 첨단산업 기지로 떠오르는 양양벤처타운에 업체들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포월농공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연면적 1,014m 2층 규모로 7억원을 들여 건립된 포월농공단지내 양양벤처타운은 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맺었으며 이 가운데 현재 미생물 종균제를 생산하고 있는 (주)코렘환경연구소가 3월초 입주를 마쳤다. 모두 8개 업체의 입주가 가능한 양양벤처타운에는 컴퓨터 키보드제작, 온도센서 개발, 화장품, 버섯가공 등 환경친화적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에 있어 설악산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재 포월농공단지는 19개 업체가 제조업, 식품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3개 업체가 공장 건립중에 있는 등 입주업체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군관계자는 “낮은 임대료와 원활한 교통여건이 입주조건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기대감

- 개항첫날 국제공항 표정스케치 및 이모저모 - - 국내·국제선 비행스케줄, 셔틀버스 운행노선 -

◇ 양양국제공항 취항노선 및 셔틀버스 운항

환동해권 허브관광과 남북항공 교류의 중심축 역할이 기대되는 양양국제공항의 역사적인 개항이 이뤄지면서 국내선은 서울과 부산을 하루 7회, 국제선은 주2회 운항한다. 강릉과 속초공항이 폐쇄되면서 강원도의 유일한 하늘길을 열어 줬던 양양국제공항은 국내선일 경우 매일 오전10시, 10시30분, 오후1시, 오후5시, 오후5시30분 등 5회 김포공항으로 출발한다. 또한 낮 12시30분, 오후6시50분 2차례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국내선 운항이 활발히 이뤄지며 항공기 이용요금은 서울은 평일 5만2천9백원, 주말 5만6천5백원, 부산노선은 평일 6만3천4백원, 주말 6만7천5백원이다.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이 시작되는 국제선 노선은 수요일(오후 2시40분)과 일요일(오후 1시40분) 주2회 양양~제주~중국 상해구간이 운항되며 요금은 일반석의 경우 20만9천원, 비즈니스석은 34만1천백원이다.

설악권의 날개로 환동해권 관광활성화의 전초기지로 떠오르는 양양국제공항의 대중교통망은 양양공항 직행버스 노선의 경우 동해안 북쪽을 따라 ▶양양공항~낙산~설악산입구~속초~간성~거진~화진포~헌내~통일안보공원~통일전망대를 운행하고, 남쪽지역은 ▶양양공항~하조대~주문진~경포대~강릉역~강릉터미널~정동진~동해~삼척 구간이 운영된다. 셔틀버스 이용요금은 구간별로 속초의 경우 2천원, 강릉 5천4백원 등이다. 이와함께 양양관내와 설악산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구간은 ▶양양공항~양양대교~양양시내~논화리~가라피~오색 ▶양양공항~남대천교~양양시내~낙산~물치~설악산입구~속초 ▶양양공항~남대천교~양양시내~낙산~물치~설악산입구~설악동 등 3개 구간이다.

◇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모저모

△이한동 국무총리 군용기타고 도착...지난 2일 개최된 양양국제공항 개항식은 양양지역 주민 등 1천2백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풍물놀이 식전행사에 이어 이한동 국무총리가 C-130 군용기를 타고 계류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개항식은 개항을 알리는 버튼이 눌러지면서 오색폭죽과 모형 여객기가 행사장 맞은 편에 마련된 무대에서 올라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항공사 양양지역 초등생 서울나들이 초청...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개항식에 이어 지난 3일 양양 송포초등 전교생 46명과 고성 명파초등 전교생 31명 등 지역의 벽지 초등학교 어린이 77명을 초청, 서울나들이 이벤트를 마련했다. 대한항공 초청으로 서울나드리에 오른 양양 송파초등 어린이 46은 이날 김포공항과 삼양 월드컵경기장을 견학한 뒤 오후7시 대한항공 비행기편으로 양양에 무사히 도착. △양양주민 27명 중국행 공항 활성화 디딤돌 마련...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지난 3일 첫 취항한 중국 동방항공 전세기 탑승객 1백37명 가운데 양양지역 단체 관광객 27이 탑승해 눈길을 끌었다. 양양 낙산신편 임원 가족 27명은 국제공항 개항 활성화를 위해 상해, 항주, 소주를 둘러보는 3박4일간의 중국여행에 나서 국제공항의 활발한 운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 양양국제공항 개항 이후 전망

양양국제공항은 현재 국내선 정상운항과 오는 4월17일부터 중국 상해노선이 본격 가동되면 국제공항으로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환동해권 허브공항을 목표로 성공적인 개항을 이뤄낸 양양국제공항이 월드컵 특수를 앞두고 현재 걸림돌로 작용되는 요인들로 인해 자칫 위축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강원도,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는 물론 자구 노력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본격추진

- 강현면 석교리 등 5개 마을 ... 특화상품 개발 주력 -

우리군은 21세기 강원도형새농어촌 모델육성과 복지농어촌만들기 사업에 따른 홍보활동과 마을단위 주민간 담화를 개최하는 등 2002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 △농업정보화 추진 △선진지 견학 △마을단위 주민간담회 △홍보활동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정신, 소득, 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평가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마을단위 지도자와 담당자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을추진단을 구성, 자율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실무내용들을 추진한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정신분야는 정보화, 신기술도입, 경영의식, 합동심, 참여의지를 살펴보고 소득분야는 친환경 농업실천, 농수산물 특성화, 기존 시설의 활용도 등을 평가한다.

특히 청정마을 가꾸기, 생활환경개선 등 환경분야 평가와 함께 마을별 특성을 활용한 특산물 개발과 농업정보화 사업을 통해 21세기 농촌형 마을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우리군은 이에 따라 석교리, 조산리, 동호리, 여성전2리, 지경리 등 관내 5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선정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추진사업과 관련, 소득분야에서 △석교리-표고버섯 △조산리-느타리버섯 △조산리-해수욕장 내실운영 △여성전 2리-4계절 테마관광 △지경리-해풍딸기 재배 등을 마을별 특화상품으로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99년 죽정자리, 2000년 전진 2리, 2001년 용천리 등 3개 마을이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로 지정돼 마을별로 5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축산분뇨 발효액비로 유기농 앞당긴다

- 강현면 석교리 등 5개 마을 ... 특화상품 개발 주력 -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2억1천5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이 본격적인 시범가동과 함께 친환경적 유기농업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현남면 인구리에서 축산 및 경종농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분뇨 발효액비 살포 시연회를 개최하고 액비살포시연과 추진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부터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을 투입, 관내에 2천 6백톤 규모의 액비 저장시설 13개소를 설치하고 살포기 8대를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 축산분뇨 발효액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액비화 사업은 연간 5만2천톤의 돼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발효액비화 사업으로, 관내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이에 따른 유기농업 기반조성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발효액비시스템 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살포 시연회는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설악淸농특산물 판매장 개장

- 양양농협 국제공항내... 강원지역 농특산물 총망라 -

양양지역 최대농협인 양양농협(조합장 이상국)이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지난 2일 강원도내 최초로 공항청사내에 '설악淸 농특산물'매장을 마련하고 양양지역 농특산물을 비롯한 강원지역 청정농특산물 판매영업에 들어갔다. 양양농협은 이날 이상국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 전세환 양양군지부장, 김호열 서광농협 조합장, 전용우 강현농협 조합장, 황순구 하조대 농협조합장 등 양양지역 4개 지역 농협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양양농협은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농특산물 40%와 강원지역 회원농협들이 브랜드화에 성공한 지역 특산물 60%의 비율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양양국제공항을 찾는 국내 외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청정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설악 淸 농특산물 매장은 양양송이와 재첩 등 그동안 양양농협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한 특산물을 전시, 판매해 관광객들에게 청정양양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창구역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장 개장과 동시에 하룻동안 50여만원의 판매를 기록한 양양국제공항내 양양농협의 농특산물 매장은 서광농협 인진썩, 봉평 메밀국수 등 다양한 신도불이 특산물이 총망라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양양농협 이상국조합장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농협 생산품을 알리기 위해 개장한 설악 淸 농특산물 매장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지역농협의 이미지 높이기와 수익증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 했어요!!!



<개항대비 결의대회>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국제공항 개항대비 결의대회가 열렸다



<바르게 정기총회>

바르게살기운동 양양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배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산리 심포지엄>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 국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려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개항기념 심포지엄>

강원의 항공비전과 활성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거평콘도에서 개최됐다.



<개항축하 리셉션>

지난 1일 낙산비치에서 개항축하 리셉션이 열려 축하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개항 축하공연 성황>

축하공연에 등장한 하리수의 노래를 들으며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있다.

"자취·하숙비 올리지 마세요"

- 지역주민과 관동대생 간담회 가져-

관동대 양양캠퍼스 총학생회와 우리군은 지역주민, 양양군, 운수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와 대학간 현안사항들에 대해 협의했다. 관동대 총학생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자취·하숙방 환경조사 △관동대생 할인제도 운영방안 △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 △인구유입 대책 추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다.

관동대 총학생회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자체조사결과 양양캠퍼스 주변지역의 자취·하숙비가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11% 인상됐으며 가격동결, 전년도 방 값 공개, 비품 및 난방시설 확충 등 주거시설 관련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또한 현재 운행되는 시내버스 구간을 거마리까지 연장해줄 것과 양양 시내 ~ 대학간 적용되는 60%의 택시 할증을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 우리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주민등록 인구수 감소로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관동대 총학생회가 양양캠퍼스 학생들의 전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으나 학생과 교직원 등 3천명 규모의 관동대와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듣고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약속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주민과 관동대생 간담회를 주재한 정영덕 부군수는 “양양지역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된 의미 깊은 간담회였다”며 “서로가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활기찬 양양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퇴임 공무원 훈·포장 전달

우리군 1/4분기 명예퇴임공무원 공로패 및 감사장 수여식이 지난달 26일 오인택 군수 등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개최됐다. 오인택 군수는 이날 명예퇴임식에서 조진환 전 양양읍장과 김희운 전 양양군의회 의사담당에게 도지사 감사패와 군수 공로패를 전달했다. 조진환 전 양양읍장은 지난 68년 공직에 입문, 예산·기획담당과 현북면장을 거쳐 지난 98년부터 양양읍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김희운 전 양양군의회 의사담당은 지난 73년 공직을 시작해 환경지도, 지역계획담당을 역임했다.

"야생동물보호 우리가 책임진다"

-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양양군지부 창립 발대식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양양군지부(지부장 김정웅)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양양군산림조합 3층 회의실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보호활동에 들어갔다. 야생동물협회 양양군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봄과 가을, 겨울철은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은 물론 구조 및 치료활동 등 폭넓은 보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과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야생동물협회 양양군지부는 야생동물 단속 및 감시활동을 위해 차량 2대와 무비카메라 1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대천 하구에서 성행하는 은어, 연어 불법포획 감시에 대비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도 갖출 계획이다. 매년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해 설악권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온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양양군지부의 공식발족에 따라 우리지역의 야생동물 보호활동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고라니, 오소리, 부엉이, 산토끼 등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김정웅 지부장은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밀렵행위 단속은 물론 야생동물의 생태적 지위 유지에 적극 나서겠다”며 “천혜자연의 보고인 우리지역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